

자신감이 없어요 🐼

Q) "저는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예쁘지 않습니다. 머릿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무슨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여고 1학년 학생입니다. 가끔 제 자신을 쳐다보면 불쌍하기도 하구요. 화도 납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

A) 먼저 편지를 보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 기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도 수없이 자매와 같은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종종 비슷한 의문을 갖기도 한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매의 글을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신 걸 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의 이 유우머는 음미해볼수록 그의 깊은 신앙심과 겸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오리지날’이라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자신의 멋진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자매님은 그렇게나 귀한 존재,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매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무한한 상상력과 솜씨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햇빛과 공기, 아름다운 색깔과 음악, 가족들과 친구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귀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며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매님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게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아이가 있는데 저도 엄마로서 제 딸에게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딸애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장난감이나 놀이를 즐거워하고 목욕 후, 잠을 잘 잔 후 기분 좋은 모습을 보면 저도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자매님이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세계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즐겁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즐거워하는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 딸이 어느새 일어나 걷고 한두 마디 말

을 하며 무럭무럭 자라듯이 자매님도 날마다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게도 제 딸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버릇, 생김새, 태어난 시간이며 발육속도, 단점들까지 모두가 신기하고 소중한니다. 자매님의 독특한, 유일한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기십시오.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무두에게는 많은 적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자매님의 몫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아가 생활이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나고 최고가 되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기고 추구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눈은 평범한 사람드러 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닮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며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이 될까요? 자매님,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작고 평범한 밀알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